

홈플러스 등 속임수 광고에 철퇴

가격 7배 올려놓고 '1+1' 광고... 과징금 6,200만원 부과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중엔 턱없이 낮은 할인을 이 적용했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부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광고하거나 종전 가격 그대로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했다.

이들 4개 대형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4월 15일까지 일부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 등에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 가격을 1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쌀을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4월 15일까지 전단지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

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직원 합숙소 기공식 개최

전북은행은 7일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 시공사 (유)군장종합건설을 비롯한 관계 업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합숙소 기공식을 가졌다.

합숙소 부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7에 위치했으며 지하층 지상4층에 연면적 630평 규모로 지하층은 주차장과 공동 취사 시설을 배치하고 속소는 지상층 총 44호이며 각 호실은 전용면적 약7평 이상으로 일반 원룸보다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그동안 승천동에 위치한 직원합숙소는 환경이 열악하고 수요대기 공 급이 부족해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시 일원의 적정 부지를 검토하던 중,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특히 전북은행 배드민턴 체육관과 연계해 여가 및 체육활동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감안해 현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직원 합숙소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시 인접해 있는 배드민턴장의 활용도를 높여 직원들의 복지 및 주거환경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수출아카데미 개최

전북중소기업청은 9일부터 11일까지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수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환경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중소기업청이 창업벤처 주관을 지정해 개최하고 있는 Start-up 전북 2016'의 부대행사 중 하나이다.

도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및 재직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수출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무역실무'와 '해외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학습기회가 비교적 적은 원거리 소재 중소기업에는 10명 이상 신청 시 해당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수출 교육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참여가 가장 많이 부여되며, 희망 기업에 대한 수출 자문기회 제공,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 가이드 북이 제공된다.

중소기업 수출아카데미 참가 희망자는 전북중소기업청 수출 지원센터(문의 063-210-6485)로 신청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잡곡피의 항당뇨 효과 확인

동물실험 결과, 혈당 및 콜레스테롤 함량 30% 줄여

농촌진흥청은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잡곡 식용피가 당뇨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식용피는 조선시대까지도 오곡의 하나로 재배면적이 10만ha가 넘는 중요한 곡식이었으나 산업화와 쌀 자급 이후 식용으로서의 소비가 거의 사라졌다.

식용피의 주요 기능성분은 루테올린, 트리신 및 캠페롤 등이며, 이러한 성분들은 미백과 항산화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용뿐만 아니라 국수용, 죽용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잡곡(웰빙)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

가 높다.

동물실험은 쥐에게 당뇨병을 유발해 정상식이를 한 그룹과 정상식이와 식용피 추출물을 같이 먹인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실험용 쥐에게 80% 에탄올에 추출한 식용피 추출물을 8주간 먹였다.

실험 결과, 식용피 추출물을 먹인 그룹이 정상식이를 한 그룹보다 혈당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30% 줄었다. 또한 식용피 80% 에탄올 추출물은 염증 억제에 대한 활성도 나타냈다.

쥐에게 식용피 추출물을 600mg/kg과 1,200mg/kg 일주일간 먹인 뒤 염증유발물질을 투여해 염증을 일으켜 붓도록 만들었다.

실험 결과, 24시간이 지난 뒤 식용피 추출물을 600mg/kg 먹인 그룹은 먹이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붓기가 20% 감소하고, 1,200mg/kg 먹인 그룹은 거의 붓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능성이 뛰어나고 콤비인을 이용한 기계 재배가 가능한 식용피를 개발했다. 최근에 개발한 품종 '보라직'은 수량성이 높고, 재배기간이 85일 정도로 짧아 다양한 작부체계 적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인신식 발작물개발과장은 "식용피는 눈에 버를 대체해 재배할 수 있고, 재배하기도 쉬운 특성을 지닌 새로운 기능성 잡곡이 잡곡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성이 우수한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재배도 쉬운 새로운 기능성 작목 및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지역 어업생산량 감소

전북지역 어업생산량은 천혜양식 어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면 어업의 부진으로 어업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전북지역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업생산량은 3,588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44톤(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해면어업이 2,401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80톤(30.4%)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해면어업에서 주요 감소 어종은 갈치 115톤(42.6%), 멸치 347톤(89.4%), 강달아류 37톤(25.3%), 바지락 111톤(55.0%), 갑오징어류 120톤(62.8%), 참조기 265톤(89.5%) 등

이었다. 반면 고등어 214톤(254.1%), 꽃게 38톤(15.5%), 꼴뚜기류 112톤(487.0%), 주꾸미 97톤(404.2%), 고동류 36톤(163.6%), 삼치류 23톤(383.3%) 등은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천혜양식어업은 1001톤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09톤(155.4%) 증가했다. 특히 바지락 582톤(153.9%)과 횡다리새우 80톤(163.3%) 등이 증가했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547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3톤(10.3%) 늘었다. 뱀장어 71톤(39.9%), 미꾸라지류 2톤(3.5%), 동자개류 24(171.4%), 자라 2톤(66.7%) 등이 증가한 반면 메기 78톤(39.4%), 향어 72(58.5%) 등은 감소했다.

/인재용 기자

정밀안전공사, '전력설비 상태감시진단 국제기술세미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8회 PECMD(전력설비 상태감시진단) 국제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력설비 기술세미나는 반도체 설

비,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규모 전력설비 현장의 진단 경험은 물론 해외 선진국의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력설비 전문가들 간의 국제교류의 장이다.

정밀안전진단 장비 분야 세계적 기업인 오미크론사와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DNV-GL사 피터 판 데 뷔엘렌(Peter van der Wielen)박사와 이스라엘 오펠의 에란 프리쉬(Eran Frisch)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인재용 기자

롯데백화점, 스위브(SWIB)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에서는 스위브(SWIB)의 다운샐피 '미테호른 G' 출시 기념 '스위브 팝업스토어'를 30일까지 운영 한다.

미테호른 G(패딩은 3년동안 모두 완판됐던 스위브의 BEST 상품으로

이번 신상품 패딩은 기능성, 디자인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돼 출시됐다.

전년 미테호른 제품 대비 다운량이 20% 증가했고 투습도는 500% 증가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